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분홍 립스틱〉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당돌한 여자〉
30 KBS 뉴스	00 생생 정보통 스페셜 20 아침드라마 〈엄마도 예쁘다〉 5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희망릴레이 사랑싣고 세계로 50 인간극장 스페셜 1~2부(재)	11	00 일일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출발! 비디오여행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인간 대 자연 극한에서 살아남기
00 KBS 걸작선 〈수상한 삼형제〉(재)		1	40 지구촌 리포트(재)	30 마님의 식탁(재)
00 KBS 뉴스 10 KBS광주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00 KBS 네트워크특선 〈노장불패〉-대전 55 바른말 고운말	2	15 문화四色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일류로 가는 길(재)	00 KBS 뉴스타임 05 꼬마과학자 시드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	3	05 MBC네트워크특선 〈물의 반란〉	10 테마스페셜(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40 감성다큐 미지수 스페셜	00 TV유치원 30 로봇 찌빠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바람이의 모험	00 두근두근 비밀친구 30 2010 남아공월드컵 특집애니메이션 〈드림킥스〉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2TV 하이라이트 〈위기탈출 넘버원〉(재)	5	00 MBC 뉴스 20 책 읽는 사람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발견 유레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러브 인 아시아	10 생생 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세자매〉
25 일일연속극 〈바람불어 좋은날〉	35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50 1 대 100	8	15 일일연속극 〈황금물고기〉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40 월화드라마 〈커피하우스〉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납량 미니시리즈 〈구미호, 여우누이뎐〉	9	45 MBC 스포츠뉴스 55 창사49주년 특별기획 〈동이〉	55 대하드라마 〈자이언트〉
10 시사기획 KBS 10 50 세계는 지금		10		
00 KBS 뉴스라인 30 콘서트 필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05 강심장
20 KBS 뉴스 30 책 읽는 방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클래식 오디세이	12	10 MBC 뉴스24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프라임 〈산업안전, 이제는 문화다〉	35 2010 남아공월드컵투나잇 45 나이트라인 ①: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①:35 2010 남아공월드컵 하이라이트 ③:10 2010 남아공월드컵 준결승 〈네덜란드:우루과이〉

EBS

06:00 세계의 교육현장
06:30 세계테마기행
07:10 일어나요 따르릉
07:20 고양이 탐정 허클
07:35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
08:00 딩동댕 신나는 아침
08:10 딩동댕 유치원
08:30 깨미랑 부카채카
08:40 뽀롱뽀롱 뽀로로
08:55 동물나라 수수께끼
09:00 짜잔형과 함께해요
09:10 뚜바뚜바 눈보리
09:25 방귀대장 뿡뿡이
09:40 따개비 루
09:50 꼬마새 머핀
10:00 EBS 10시 뉴스
10:10 60분-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30 생방송 교육마당
12:20 아시아 테마기행
13:10 프로열전 〈웨딩 플레너〉
13:40 요리비전
14:10 두근두근 우리들 세상
14:20 꾸러기 상상여행
14:4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15:00 친구들과 짜잔짜잔
15:10 출동! 소방관 샘
15:20 방귀대장 뿡뿡이
15:35 동물나라 수수께끼
15:40 호기심 대장 포코요
15:50 꼬마새 머핀
16:00 다함께 딩동댕
16:1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꼬마 자동차 붕붕
16:50 깨미랑 부카채카(재)
17:00 이야기가 좋아요
17:10 수퍼 와이
17:35 올리비아
17:45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재)
18:1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10 돌려라! 시간나침판
19:35 요술공주 세리
20: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e
20:50 세계테마기행 〈아시아의 별, 베트남〉
21:30 한국기행
21:50 다큐프라임 〈히말라야 커피로드〉
22:40 프로열전
23:10 다큐 10 +
00:00 세계의 교육현장
00:30 지식채널 e(재)
00:40 TV 평생대학

EBS플러스1

04:10 10주완성EBS 수능특강 선택 〈한국지리〉
05:00 EBS 탐스런 〈한국지리〉
06:00 EBS 포스 〈고전문학〉
07:00 〃 〈수학Ⅱ〉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08:40 〃 〈사회〉
09:30 프로파일러 〈수리영역〉
10:00 세계의 교육현장
10:30 생방송 교육마당
11:30 한입에 꿀꺽 〈수리영역〉
12:00 EBS내신 6감 〈국어(상)〉
12:50 〃 〈화학〉
13:4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재)
14:30 〃 〈사회〉(재)
15:20 EBS 탐스런 〈한국지리〉(재)
16:10 〃 〈화학Ⅰ〉(재)
17:00 10주완성EBS 수능특강 선택 〈한국지리〉(재)
18:00 EBS 포스 〈고전문학〉(재)
19:00 〃 〈수학Ⅱ〉(재)
20:00 10주완성EBS 수능특강 선택 〈화학Ⅰ〉(재)
21:00 10주완성EBS 수능특강 외국어 영역 〈박홍근의 화룡점정〉
22:00 갈아만든 사회탐구 〈한국지리〉

EBS플러스2

08:00 검정고시 강좌
08:30 의학 치의학 약학 적성 시험대비 강좌
09:00 EBS TV 중학 1학년 〈비문학〉
09:40 〃 〈수학 1-1〉
10:20 EBS 중학 퍼펙트 체크업 〈수학 1-1〉
11:00 방귀대장 뿡뿡이
11:15 딩동댕 유치원
11:35 Easy Job English
11:5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12:30 〃 〈수학 2-1〉
13:10 EBS TV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수학 2-1〉
13:50 중학영어독해Level1
14:30 Yo! Yo! PLAYTIME 2
14:50 EBS 클립뱅크
15:10 Sing Sing 영어동요
15:20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15:50 EBS 초등 내공냠냠 〈수학 3-가〉
16:20 〃 〈수학 4-가〉
16:50 〃 〈수학 5-가〉
17:20 〃 〈수학 6-가〉
17:50 EBS TV 중학 1학년 〈비문학〉(재)
19:1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수학 1-1〉(재)
19:5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기성용 "축구감독 아버지 부담 됐어요"

SBS '좋은아침' 내일 방영

SBS TV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은 오는 7일 오전 9시20분 월드컵스타 기성용 편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꽃미남 축구스타'로 뽑힌 기성용의 매력을 분석하고 그와 가족의 인터뷰를 전한다.

5일 제작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최근 녹화에서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광주시축구협회장은 "1985년 결혼했는데 아내감의 조건으로 키와 얼굴, 직업을 봤다"며 "결국 육상 선수 출신의 교사 아내를 맞아 성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기 회장은 고종수, 윤정환, 김태영 등 국가대표를 배출한 금호고 축구부에서 감독생활을 하고 광양제철고 체육 교사를 지냈으며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을 거쳐 이사로 재직 중이다.

기 회장은 아들에게 가장 미안했던 일로 "성용이 태어날 당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을 꼽으며 "출산 당일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선수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가 밤새 고스톱을 쳤다"고 고백했다.

이어 "코치를 통해 아들이란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태어난 아들을 보고 아내에게 제일 처음 건넨 말은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였다"며 웃었다.

기성용의 부모는 며느릿감의 조건으로 '내조의 여왕'을 꼽았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 초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활약을 했던 기성용은 "축구 감독 아버지를 뒀다는 말 때문에 마음 졸여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며 학창 시절 겪어야 했던 마음 고생담도 들려준다.

/연합뉴스

김혜수 MBC 'W' 진행자로

제목도 '김혜수와 W'로 변경

MBC는 국제시사 프로그램 'W'의 진행자를 최윤영 아나운서에서 연기자 김혜수로 교체하고 프로그램 제목도 '김혜수와 W'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W'는 한국의 시각으로 지구촌을 직접 바라본다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가난, 학대와 재난 상황을 소개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최윤영 아나운서는 첫회부터 5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김혜수는 오는 16일 방송부터 진행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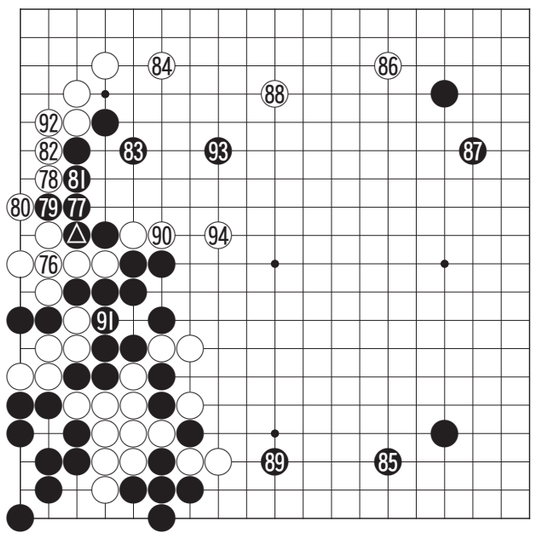
제작진은 "방송 5주년을 맞아 변신을 고민하던 중 내부적으로 김혜수 씨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며 "직접 만나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김혜수 씨가 W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많은 데다 관심사가 'W'가 추구하는 가치와 앙상블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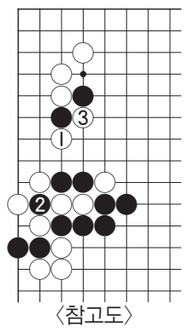
제19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빈삼각의 묘수

2회전 1국 5보(76~94)

白 최 덕 5단 (광주교도소) 黑 기용성 5단 (한국전력)





〈참고도〉

흑 ▲로 단수쳐 바꿔치기가 일단락되었다. 이 결과는 좌변의 백은 아직 숨쉴 여지가 있는 반면 하변의 백 모양은 워낙 두터워 백의 성공으로 보인다.

역시나 최덕 5단은 백 76으로 강인하게 이어 "이 돌은 잡히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다. 이 수가 최강수 였으나 이 수로는 '참고도'처럼 가볍게 백 1로 붙이고 흑 2로 따내야 할 때 3으로 흑 한점을 잡는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쪽이 더 편했다.

흑 77로 빈삼각으로 꼬부린 수가 기용성 5단의 고심이 엿보이는 한 수로, 속칭 '빈삼각의 묘수'라고 할만하다. 이 수로 79에 막는 것은 77에 끊겨 안되며 그렇다고 81에 두는 것도 역시 백이 79에 늘면 잡는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백은 78로 한칸뛰는 수가 유일한 생명선이며 82까지 아슬아슬하게 도강하고 있다. 백 90으로 움직여 또다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6일(음 5월 25일 丁巳)

子 36년생 걱정의 98%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48년생 내실을 기하라. 60년생 급하면 그르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72년생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동시에 있다. 84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보이려는 시기다. 행운의 숫자 : 05,38

丑 37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 온후하게 대하라. 49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치도 않다. 61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73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85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07,26

寅 38년생 새로운 투자는 내일로 미루라. 50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니 수양하는 하루를 보내라. 62년생 아내와 불화를 대화로 노력하면 애정으로 변하리라. 74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34

卯 39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복병이 있다. 51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63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75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1,40

辰 40년생 좋은 매너에 좋은 처녀가 따르리라. 52년생 주변의 간섭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힐 수 있다. 64년생 직업 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6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4,29

巳 41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매사에 조심하라. 53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65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77년생 흉과 복이 다반사니 심신을 다스려라. 행운의 숫자 : 21,37

午 42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는 없다. 54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6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8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선택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01,31

未 43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 부러우랴. 55년생 외형은 줄이고 실리는 늘려야 산다. 67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속을 위주로 진행하라. 79년생 이웃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03,36

申 44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56년생 제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68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80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니 실리를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4,43

酉 45년생 큰 계획으로 임하라. 57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69년생 희망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81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 09,35

戌 46년생 과거는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 58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을 태우니 자세하게 살펴보라. 70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82년생 끈기 있게 진행해도 심성이 곱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7,45

亥 47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59년생 마음은 갈팡질팡 짐작도 못할 수니 정신을 가다듬고 지내라. 71년생 멀리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83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9,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I can be your steady partner

난 자네한테 든든한 파트너가 돼 줄 수 있어

A : Would you like to join me in a double match?
B : No problem. I can be your steady partner.
A : That's what I am hopping for.
B : Now your hope comes true.

A : 저하고 함께 혼합복식에 참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B : 좋아, 난 자네한테 든든한 파트너가 돼 줄 수 있어.
A :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 : 자, 자네 소원이 이뤄지는 거야.

* a double match = 혼합복식
* Would you like to~ = ~ 해 주시겠습니까?
* come true = 실현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雨(あめ)になるそうですよ

비가 온다고 했어요

A : おはようございます. 寒(さむ)いですね.
B : 本当(ほんとう). 天氣(てんき)も悪(わる)いし. 雨(あめ)が降(ふ)り出(だ)しそうな天氣ですね.
A : そういえば, 雨(あめ)になるそうですよ. 天氣予報(てんきよほう)で言(い)ってました.
B : そうなんですか?

A : 안녕하세요. 춥네요.
B : 정말 그렇네요. 날씨도 나쁘고.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네요.
A : 그러고 보니 비가 온다고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그랬어요.
B :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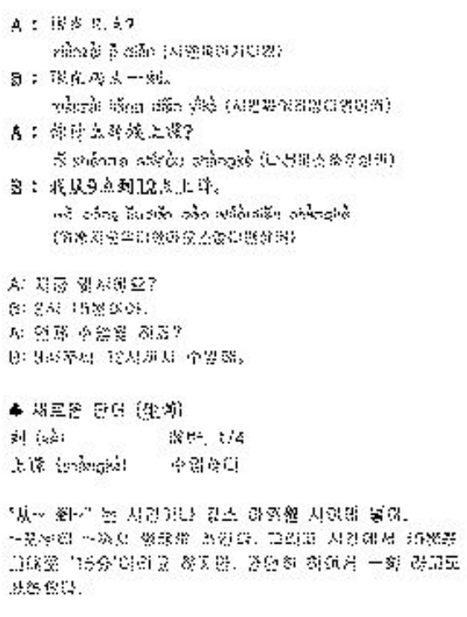
悪(わる)い : 나쁘다
天氣予報(てんきよほう) : 일기예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www.english22.co.kr ☎ 224-9412

니하오 쭝구워

从一到一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教子採薪(교자채신)

가르칠 교, 아들 자, 캘 채, 섶 신

교자채신(教子採薪)은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말이다.

춘추시대에 노(魯)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물었다. "너는 여기서부터 백 보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를 먼저 캐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백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를 먼저 캐 오겠느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백 보 떨어진 곳의 나무를 먼저 캐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백 보 떨어진 곳의 땔나무는 언제든지 캐 올 수 있다. 하지만 백 리 떨어진 곳의 나무는 누구나 캐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먼저 캐 가기 전에 먼 곳의 것부터 먼저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의 땔나무가 남아있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출전] 『속맹자(續孟子)』
※ 급수 : 한자능력검정 8급, 7급, 4급, 1급

〈대능출판〉
www.daeneung.com